



◇비구니 스님을 비롯한 여성 불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행과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2년 7월 대만 화범대학에서 열린 제7차 사키야다타대회에서 한국의 좌선을 체험한 후 포행하는 출·재가여성 불자들.

인권·의료·복지 등 폭넓은 불교운동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

전세계 대부분의 여성 수행자들은 남성 수행자들에게 의존적 태에 있거나 주변적 위치에 있다. 비구니 승단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가



◇증엄 스님



◇아야케마 스님



◇자유케넷 스님



◇피마초드론 스님



◇성향 법사

여성불자들 역시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신행과 대사회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구에 불교가 전래되고,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불교가 영역을 넓히게 되면서 불교 여성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불교계 내외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며 수행에 매진하는 한편 포교, 인권, 환경, 여성운동, 사회복지사업 등에 나서고 있다.

불교 여성운동 가운데 인권 분야에서는 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 사회비평가로서 인종과 여성문제에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벨 후크스(Bell Hooks), 참여불교(http://www.engagedpage.com) 사이트를 통해 인권운동과 지뢰제거 캠페인을 펼치는 미국의 레슬리 윌리엄스(Lessie Williams)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분야는 탁났한 스님의 제자로서 불교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조안 헤리팩스(Joan Jiko Halifax)를 비롯해 조앤나 메이시, 헬렌 노르빅 호지 등이 돋보인다. 조앤나 메이시(Joanna Macy)는 '참여불교' 운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활동가이자 생태주의자, 저술가로서 전세계에

서 환경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중이다. 스웨덴의 언어학자, 환경운동가, <오래된 미래, 라다크>의 저자로서 인도 '라다크 프로젝트'의 설립자인 헬렌 노르빅 호지(Helen Norberg-Hodge)는 '생태와 문명을 위한 국제 사회'의 책임자로서

참여 불교사이트 통해 소리없는 인권운동 폭력에 노출된 여성·어린이에 쉼터 제공 불교 AIDS네트워크...환자에 참선 교육

1986년 '올바른 삶' 상(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성운동분야에는 87년 세계비구니대회를 열고 사키야다타를 결성해 당시까지 가부장적이었던 각국의 승단을 놀라게 한 아야 케마(Ayya Khema) 스님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레즈비언(여성 동성연애자)의 신행을 위해 애쓰고 있는 미국인 사리카 다르마(Sarika Dhama) 스님, 스리랑카의 여성불자위원회 회장 찬드라(Chandra) 여사, 사키야다타 현 회장인 해공(Kama Lekshe Tsomo) 스님, 20년 동안 폭력에

노출된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해온 쿤닝 카니사(Khunying Kanitha Wichiencharoen, 여성지위향상연합의 공동 창립자), 가정 중심의 불교여성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는 다이안 밴 페리스(Diane Van Paris) 스님 등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복지 및 의료분야에서는 전세계에 400만 회원을 가진 대만 자제공덕회 창시자인 증엄 스님이 가장 유명하며 환경운동가로서 임종간호 활동을 펼치는 조안 지코 헤리팩스, 태국의 사회사업가인 광생 스님, 엔코 팻 오후라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동종 선사인 엔코 팻 오후라(Enkyo Pat O'Hare) 스님은 불교 AIDS 네트워크를 조직, 맨해튼의 AIDS 환자들이

를 위한 참선 모임을 지도하면서 정기 수련회도 열고 있다. 이밖에 불교교육 분야에 앞장선 대만 화범(華梵)대학 설립자 효운(曉雲) 노스님(92), 소년원 등의 청소년 교화에 앞장서온 카이트리어나 리드(Caitriona Reed), 종파를 넘어선 평화운동에 매진해 온 산드라 지슈(Sandra Jishu Angyo Holmes), 약물 재활치료, 도박 중독증에서부터 강간, 아동학대에 이르는 사회문제에 대해 불교 심리학적 해법을 제시해 온 고타미(Gotami) 스님 등도 불교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꼽힌다.

각계의여성 수행자들

성향법사 송산스님 제자...美 관음선원 부원장

선종

성일스님 英가이아하우스 법사...한국 '선' 소개

화계사 조실 송산 스님의 제자인 성향(바바라 로드), 낸시 브라운 헤지페스, 제인 맥라인 도비즈 법사와 송광사 구산 스님(임직)의 제자로서 영국 '가이아 하우스' 지도법사를 맡아 한국 선을 전하고 있는 성일(마르티네 베첼러) 법사를 비롯 서구형 선불교인 불교명상종을 설립한 자유 케넷 스님, 바하의 음악을 화두로 주는 모린 묘온 스투어트 법사 등이 대표적이다.

1992년 송산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성향(Barbara Rhodes) 법사는 송산 스님이 지도하는 관음선원의 부원장이자 관음선원 산하의

플로리다, 시카고, 콜로라도 선센터의 지도법사로 활동중이다. 1962년 일본 조동종 총본산 총지사의 방장 고호 스님으로 비구니계와 인가를 받은 자유 케넷(Juyu Kennet, 1924~1996) 스님은 197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샤키아수 도원을 설립하고 서구형 선불교인 불교명상종을 설립했다. 1977년 일본 임제종의 소엔 나가가와 노사에게 임제선을 배우고 82년 인가를 받은 모린 묘온 스투어트(Maurine Myo-On Stuart, 1922~1990)는 바하의 음악을 화두로 내어주는 등 독창적인 선불교를 선보였다.

불교 여성지도자들이 그동안의 소극적인 면모를 일신하며 수행, 교화, 대사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성 수행자들은 선종, 남방불교, 티베트 밀교 등 종파나 지역의 전통에 입각한 수행을 한 후 수행센터나 불교단체를 설립해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남방불교

아야케마 사키야다타 창립 남방불교 서구 전파

루스 테니스 음악·운동 등 다양한 방면으로 명상 지도

55세에 출가해 비구니계를 최초로 단합시킨 아야 케마(Ayya Khema) 스님은 1923년 독일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나 99년 입적 때까지 남방 불교의 전통을 세계에 전한 선구적인 비구니 스님이다. 78년부터 호주 시드니의 '붓다 담마 사원'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많은 산림 승원을 설립했으며, 87년 세계 최초의 비구니 국제대회를 열고 사키야다타를 창립했다.

1960년 미얀마의 고승 우 바킨(U Ba Khin) 문하에서 공부한 루스 테니스(Ruth Denison)은 전통적인 교리의 틀을 벗어나 운동과 음악, 리듬, 독경, 소리와 보조적인 명상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위빠사나 명상을 지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태국청년불교연합의 지도법사인 쿤 매 시리 크린차이(Khun Mae Siri Krinchai)는 태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명상 강의와 실법으로 2001년 '훌륭한 여성 불자'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티베트불교

텐진 팔모 히말라야 석굴 12년 수행한 첫 서구여성

툽텐 초드론 종교간 대화... '훌륭한 여성불자상' 수상

영국 출신의 티베트 비구니인 텐진 팔모(Tenzin Palmo) 스님은 1976년 히말라야 석굴에 입산하여 12년간 수행한 최초의 서구 여성이다. 인도 북부지방에서 비구니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은 비구니 계백을 잇기 위해 기금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법무재단의 상임법사인 툽텐 초드론(Thubten Chodron) 스님은 불교와 유대교간의 종교간 대화를 시작해 2001년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훌륭한 여성 불자' 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국제적인 불교 뉴스 매거진인 <만달라(Mandalal)>의 편집장이자 '자유 감옥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로비나 쿠퍼틴(Robina Courtin) 스님,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로 활동중인 르네 핸드버그(Lene Handberg) 박사, 1985년 달라이 라마로부터 직접 비구니계를 받고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소재한 툽텐 샤키아수 임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텐진 가췌(Tenzin Kacho) 스님 등도 여성불교를 이끌고 있다.

무종파주의

묘법스님 한국서 수계...위빠사나 명상 지도

클라라 루즈 스페인에 수련센터...요가 명상 교육

영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비구니계를 받은 묘법(Helen Jandamit) 스님은 1974년 이후 위빠사나 명상 강좌를 주도하고 있고, 태국에 국제 불교명상센터를 설립했다. 스피리트 락(Spirit Rock) 명상센터의 창립자로서 통찰명상회의 지도법사인 안나 더글라스(Anna Douglas)는 선종과 티베트불교의 불이학과, 즉첸(Dzogchen) 전통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위빠사나와 참선, 티베트 밀교(가류파, 남파)를 수행한 클라라

루즈(Clara Luz)는 스페인에 니마과 수련센터를 처음으로 세운 후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와 요가, 명상을 함께 가르치고 있다. 1965년까지 남방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해 제16대 카르마파(Karmapa)에 의해 미국 토론토 카르마 카구 센터 초대 지도법사에 임명된 세실리 콰이트(Cecille Kwait)는 남방 및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